

‘연고지 악연’ 부천-제주 오늘 첫 맞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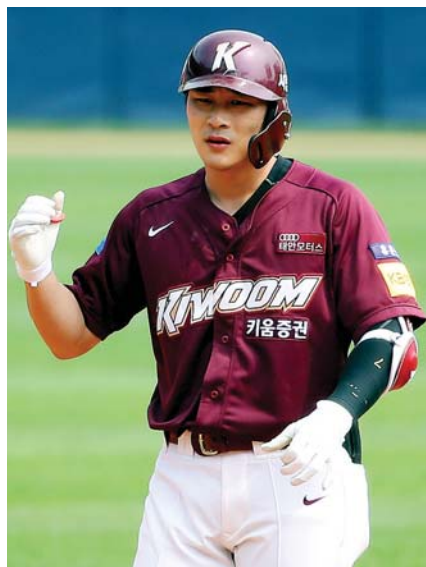
SK 프로축구단, 2006년 연고지 옮겨 ‘제주UTD’ 이후 시민구단 ‘부천FC1995’ 창단해 2부서 시작 부천 ‘동기부여 잘돼’… 제주 ‘자신감 되찾게 준비’

‘연고지 이전’이라는 역사로 얽힌 프로축구 부천FC1995와 제주 유나이티드가 K리그2(2부리그) 무대에서 처음으로 격돌한다. 부천과 제주는 26일 오후 7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20 4라운드에서 맞붙는다. K리그에서 두 팀의 첫 맞대결로, 14년 전부터 이어진 악연으로 특히 주목받는 경기다. SK 프로축구단이 2006년 부천에서 제주로 연고지를 옮긴 것이 시작

부천이 K리그2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는 사이 제주가 출몰 1부리그에 속해 맞붙을 기회가 없었으나 제주의 강등으로 마침내 대결이 성사됐다. 앞선 3경기에서 두 팀의 분위기는 극명히 갈렸다. 부천은 개막 3연승 선두(승점 9)로 제주와의 일전을 기다린다. 1988~1996년 SK의 전신인 유공에서만 선수 시절을 보낸 송선호 감독이 “부천 시민이 기다려 온 경기”라며 필승을 다짐할 정도로 선수단의 동기부여도 크다. 부천 구단은 이 경기 포스터에 연고 이전이 결정된 날짜를 되새기는 ‘REMEMBER 2006.02.02’라는 문구를 내세워 전의를 불태우기도 했다. 반면 ‘우승 후보’로 꼽힌 제주는 승리 없이 8위(1부 2패·승점 3)에 그치고 있다. 대전하나시티즌과의 3라운드에선 두 골을 먼저 넣고도 세 골을 얻어맞아 역전패해 이번 경기의 부담감이 더 커졌다. 1997년 부천 SK에서 데뷔해 2003년까지 뛰었던 남기일 감독은 “부천은 쉽지 않은 상대.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은 더욱 클 것이다”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대전과의 경기 후반 25분까지의 경기력은 어느 팀을 상대해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서 “이번 경기에서 자신감을 되찾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나성범.



김하성.

연합뉴스

NC 나성범-키움 김하성, MLB 도전생 맞대결

나성범, 17경기 타율 0.290 김하성, 18경기 타율 0.262 0.290, 4홈런 등을 기록하며 NC의 중심타선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무릎을 다쳐 시즌을 포기했던 나성범은 조심스럽게 복귀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나성범은 지명타자로 출전하다가 지난 24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부상 이후 처음 우익수로 선발 출장했고, 계속 활동 범위를 넓혀나갈 전망이다. 김하성은 18경기 타율 0.262, 3홈런 등을 기록 중이다. 시즌 초반 키움 타선이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지면서 김하성도 함께 고전했지만, 점차 부담을 털어내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주루 중 발목을 다치기도 했지만, 타박상 진단을 받고 다시 선수단에 합류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편 NC는 14승 3패(승률 0.824)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 키움은 10승 8패(승률 0.556)로 KIA 타이거즈와 공동 4위다. 연합뉴스

KBO, 강정호 1년 유기실격·봉사 300시간 징계

예상보다 낮은 수위 받아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제 처분이 해제된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우동현(왼쪽)과 배병준.

연합뉴스

프로농구 서울 SK·인삼공사 우동현·배병준 맞트레이드

프로농구 서울 SK와 안양 KGC인삼공사는 가드 우동현(24·177cm)과 배병준(30·191cm)을 맞트레이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삼공사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우동현은 명지대 출신으로 2018~2019 시즌 D리그에서 신인 최초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등 가능성을 보인 유망주다. 인삼공사는 “박지훈의 상무 입대 이후 백코트진을 보강하고자 이해관계가 맞는 SK와 트레이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SK에서 뛰게 된 배병준은 2012년 창원 LG에서 프로 데뷔했고, 2018년부터 인삼공사에서 뛰었다. 정규리그 통산 117경기에 출전, 평균 2.9점, 1.0리바운드, 0.4어시스트를 올렸다. SK는 배병준이 “정확한 3점 슈트로 팀의 외곽 공격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SK는 전태풍의 은퇴로 백업이 약해진 포인트 가드진 보강을 위해 LG에서 6월 1일자로 양우섭(35·185cm)도 영입한다. 2008년 부산 kt에서 데뷔한 그는 통산 정규리그 450경기에서 평균 4.2점, 1.6리바운드, 1.7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이재성, 선발 90분 활약… 팀 승리 거둬

공격 포인트 추가 못해 16일 레전스부르크와의 26라운드에서 ‘독일프로축구 재개 1호 골’의 주인공이 됐던 이재성은 이날은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진 못했다. 킬은 슈투트가르트에 3-2로 승리, 코로나19 영향에 중단됐던 리그가 재개된 이후 1승 1무를 포함해 최근 3경기 무패(1승 2무)로 7위(승점 38)에 자리했다. 킬의 수비수 서영재는 벤치에 앉았으나 끝날 때까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연합뉴스

세상의 모든 돌 이야기

STONE

현 무 압

수입대리석·화강석 판매 및 수입대행

대리석

라임스톤

트라버틴

화강석

샌드스톤

중국석

오닉스

마블인은 30년동안 이태리, 스페인, 터키 등 세계 각국의 대리석 광산들과 직거래 하며 자체 광산을 개발, 수입, 가공, 판매하는 수입석 전문 회사입니다.

마블인

하치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42
공 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52

T. 064)713-6866 / 010-3873-7650
E-mail : marble2017@naver.com / www.marblein.co.kr